

취재 요청

신: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희망의 우리학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수 신: 언론사 교육, 사회 담당
■ 제 목: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출범식 및 청소년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
■ 문 의: 배경내, 타이루(최훈민)

“폭력의 교육 이전 안녕!”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출범식 및

청소년이 원하는 대선 교육정책 설문조사, 청소년 대선후보 질의 결과 발표

청소년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

1. 학생들의 삶과 배움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학교가 폭력과 차별로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잇따른 공격과 학생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오랜 관념, 갈수록 가혹해지는 경쟁교육 등 때문에,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노력이 다시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배움터지킴이에 의한 학생 성폭력, 무리한 징계 등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졸속 대책들이 학생의 인권을 외려 침해하는 일들도 심각한 지경입니다. '폭력의 학교'가 '학교폭력'을 만들고, 폭력적인 대책들 때문에 학생들이 다시금 무권리의 열악한 상태로 내몰리는 일들이 악순환 되고 있는 이때, '폭력의 학교를 인권의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2. 또한,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의 삶과 인권에 대한 보장 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를 일구고자 하는 가치와 원칙은 가정, 보육시설, 학원, 일터, 지역사회 등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학교의 변화 또한 튼실해질 수 있습니다. 때마침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과 어린이.청소년의 삶과 인권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고민하는 전국의 교육·인권·청소년·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총 겹집 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법', '아동청소년 인권법' 입법운동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선정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대시민 캠페인과 포럼 등의 활동들을 추진해나가고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연대체를 새롭게 꾸리고, 10월 4일 출범식을 진행합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출범식>

일시: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장소: 국회 제1간담회실 (의원회관 신관 427-1호)

* 진행순서는 2페이지에 참고

4. 이날 출범식에 앞서 1부로는 전국 만여 명의 청소년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이루어진 <청소년이 원하는 대선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이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대선후보 청소년정책 공개질의> 결과 발표를 위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희망의 우리학교'의 기자회견이 함께 진행됩니다.
5. 많은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기자회견 및 출범식 진행순서

